광주연극협회, 소극장축제 '희喜낙樂-웃음의 미학, 코미디'

무더위 쏵~ 시원한 '웃음폭탄'

15일~7월1일 궁동예술극장 등

'바보' 등 코미디 연극 6편 무대

유쾌한 코미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제10회 소극장축제가 15일부터 7월1일까지 광주궁동예술극장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푸른연극마을'의 '바보' 연습 모습.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웃음 폭탄'

배우들의 흘러내리는 땀과 거친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소극장은 연극의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주최하는 제10회 소극장축제에 가면 이같은 연극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15일~7월1일(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 30분, 일요일 오후 5시)까지 궁동예술극장 등.

특히 이번 축제는 '희喜낙樂-웃음의 미학, 코미디'라는 주제를 설정, 처음 연극을 접하는 이들도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코미디 연극'만을 집중적으로 무대에 올린다.

▲바보(15~17일·궁동예술극장)

'푸른연극마을' 작품으로 다니엘 키이즈의 원작을 각색했다.

어린 시절 빵집 주인에게 떠맡겨진 동섭은 아이큐 70의 저능아다. 어느날 동섭은 저능인의 지능을 높여주는 '인간 지능 증대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던 오 박사에게 선택 받아 아이큐 200으로 변신한다. 김현수, 정일행, 이당금 씨 등이 출연한다.

▲하녀들(21~24일·궁동예술극장)

장 쥬네의 희곡이 원작이다. 하녀 자매 선희와 명희는 자신들이 증오하는 사모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사모님의 정부를 경찰에 고발한다. 그들이 보낸 익명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모든 일이 탄로날 위험에 처하자 하녀 자매는 사모님을 독살하기로 마음 먹지만 일은 꼬여만 간다. 극단 '청춘' 작품으로 강한나·김은미·채희영씨가 출연한다.

▲돈 내지 맙시다(28일~7월1일·궁동예술극장)

다리오 포 원작으로 국내에서 자주 상연되는 작품 중 하나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물가 마저 오르자 동네 여자들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집어들고 나온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여자들의 추격전이 이어지고, 여자들이 훔친 물건을 옷 속에 감추면서 '임신'이라는 해프닝으로까지 이어진다. 극단 'Y' 작품으로 박규상·심성일씨 등이 출연한다.

▲Love is…(22~25일·문예정터)

유일한 창작극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뮤지컬로 풀어냈다. 아름다운 사랑, 슬픈 사랑, 가족간의 사랑 등 다양한 사랑을 브로드웨이의 유명한 뮤지컬곡들을 배경으로 펼쳐놓는다. 극단 '진달레 피네'의 작품으로 최현진·안정열씨 등이 출연한다.

▲마술가게(30일~7월1일·문예정터)

인간이 되고픈 마네킹들이 살고 있는 고급 의상실에 어느날 두명의 도둑이 들어온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도둑과 신출내기 순진한 도둑은 함께 불꺼진 고급 옷가게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가진 자들의 비리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한바탕 난장을 벌인다. 극단 '얼·아리' 작품으로 양태훈·정태석·이선미씨 등이 출연한다.

▲택시 드리벌(23~24일·광주영상예술센터)

장진의 재기발랄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코믹물.

개인 택시 기사 장덕배는 한 여자가 두고 내린 가방을 발견한다. 소심한 덕배는 가방 처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그의 내면 속 모습들은 무대로 뛰어나와 가방을 가져 가라고 유혹한다. 그의 택시를 타고 내리는 다양한 서민들의 모습이 쉴 새 없이 웃음을 만들어 낸다. 극단 '시민' 작품으로 표정화·정정인씨 등이 출연한다.

일반·대학생 1만2천원, 청소년 7천원. 삼복서점·충장서점 등에서 사랑티켓을 구입하면 2천원~5천원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양화가 김동하 유작전 14~30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열정의 삶 미완의 예술

심장마비로 46세 생 마감

인물 통해 슬픔·분노 형상화

유족 소장품·임대작 70여점

광주 지역 화가들이 작고 작가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유작전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고(故) 김동하(1960~2005)씨. 인물을 통해 삶의 슬픔과 분노를 형상화해온 김씨는 2005년 12월 심장마비로 46살 생을 마감했다. 10차례 개인전을 갖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미술인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그와 교분을 나눴던 화단의 지인들이 '고 김동하 유작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식)를 결성, 14~30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고 김동하 유작전-열정의 삶과 미완의 예술'전을 개최한다.

이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화가 10여명은 이번 전시를 위해 유족 소장품과 컬렉터들로부터 임대한 작품 70여점을 모았다. 또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작품을 표구하고 화집도 제작했다.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도 뜻을 같이해 전시공간을 기꺼이 할애했다.

작가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전시는 모두 2부로 구성됐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작품을 모은 1부에서는 왜곡된 인물들을 통해 현실을 고발하는 연작들이 소개된다.

故 김동하 작 '여인'

1995년부터 작고 전까지 작품을 선보이는 2부에서는 눈을 감고 있는 '묵상적 인물'을 주제로 작가의 독창적인 화법을 드러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김씨는 이 시기에 탄탄한 데생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적 감성을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흥에서 태어나 목포대학교 미술대학과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3회 광주미술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2-357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삶을 스케치하는 네개의 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지역 춤 작가전'… 백난희무용단 등 4개팀

백난희무용단의 '관계(Relationship)'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예술감독 임지형)이 주최하는 '2007 지역 춤 작가전'이 16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삶을 스케치하는 네개의 춤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역의 젊은 안무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로 첫 행사인 올해에는 모두 4개 현대무용단이 참여했다.

백난희무용단(안무 백난희)이 선보이는 '관계(Relationship)'는 '나, 너, 우리'라는 틀 속에 맞물려 돌아가며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우리네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작품으로 백난희·김민성씨 등이 출연한다.

전국안무가대회 대상 등을 수상한 이준철씨가 이끄는 청호현대무용단은 인간이 늘 직면하게 되는 '선택'의 문제를 몸짓으로 풀어낸 '가위, 바위, 보'를 무대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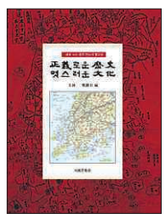
부부 무용가인 김은정·한창호씨가 함께 안무에 참여하고 출연하는 '온 앤 오프 무용단'은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는 구슬픈 아쟁 소리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꿈과 사랑을 그린 2인무 '몽환'을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김미선무용단(안무 김미선)은 고전 작품인 '춘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을 인간의 인생사에 비유한 '춘향(春香)…스캔들'을 공연한다. 문의 062-230-74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역사·문화 총정리

역사·미술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 '아름다운 역사…' 출간



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한 책이 나왔다.

'아름다운 역사 멋스러운 문화'(사회문화원)는 역사학자, 미술평론가, 소설가, 언론인 등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이거나 뿌리를 둔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 작업의 산물이다.

편저자 정진백씨는 서문에서 "(출간) 작업을 집단·공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가능한 역사 서술 상의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하고 지배 세력이 조작·기술해 놓은 왜곡된 광주·전남 상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1장에서는 광주·전남의 역사(이이화), 산천(문순태), 문화(김정호)를 개괄적으로 정리했다. 2장은 광주·전남의 고대 및 중기 사회를 다루고 있다. 고문헌이나 논문 등을 바탕으로 '유학사상에 나타난 호남 정신의 정립 방향'(오종일), '조선조 사림과 광주·전남의 사림 문화의 성격'(황의동), '임진왜란과 호남 의병'(정종재) 등 선사 시대에서 조선후기까지 광주·전남의 역할과 위치를 보여준다.

3장 '광주·전남의 문화 예술'에는 박석무, 이태호, 지형원씨 등이 '유배지 문화', '광주·전남의 회화 및 화가', '서예', '임방울' 등을 썼다. 4장은 '1894년 동학 농민운동과 항일 의병전쟁', 5장은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 운동', 6장은 '해방과 분단', 7장은 '민주화의 길', 8장은 '새로운 통일 시대를 향하여'를 각각 주제로 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박혜진 가야금 연주

14일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가야금 연주자 박혜진(사진)씨를 초청,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14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이번 공연에서는 '춘향가' 중 '천자뒷풀이 대목부터 군로사령 대목', 신민요 '내고향의 봄' '동해바다' 25현과의 협연곡 등을 선보인다.

제3회 한국 전통음악경연대회 대상, 제25회 탄금 가야금 경연대회 은상 등을 수상한 박씨는 현재 중앙대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남도 가야금병창 진흥회, 국악 실내악단 '도드리' 단원으로 활동중이다. 고수는 이대휴씨. 무료 공연.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황진이(15세) 최고급관
2관	슈렉3(15세/한글자막)
3관	쉬즈더맨(12세)/황진이(15세)
4관	밀양(15세)
5관	슈렉3(15세/한글자막)
6관	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12세)/상성(18세)
7관	팩토리걸(18세)/메신저-죽은자들…(15세)
8관	캐리비안의 해적3:세상의 끝에서(12세)
9관	황진이(15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캐리비안의 해적3(12세)
2관	황진이(15세)
3관	황진이(15세)
4관	스파이더맨 3(12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3(12세)
6관	못말리는 결혼(15세)
7관	밀양(15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자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

향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뒷편)

1관	못말리는 결혼(15세)/전설의 고향(12세)
2관	<어린이전용관>박물관이 살아있다(전체)
3관	슈렉3(전체)
4관	슈렉3(전체)
5관	스파이더맨3(12세)/상성-상처받은 도시(18세)
6관	밀양(15세)
7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12세)
8관	황진이(15세)
9관	캐리비안의 해적-세상의 끝에서(12세)
10관	황진이(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메신저(12세)
2관	밀양(15세)
3관	슈렉3(12세)
4관	슈렉3(12세)
5관	황진이(15세)
6관	캐리비안 해적(12세)/황진이(15세)
7관	데스워터(15세)
8관	상성-상처받은 도시(18세)/전설의 고향(12세)
9관	캐리비안 해적(12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탑클래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슈렉3(12세)
2관	메신저(15세)
3관	슈렉3(12세)/캐리비안의 해적 3(12세)
4관	황진이(15세)
5관	캐리비안의 해적 3(12세)
6관	밀양(12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주차타워)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